

조형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현대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 연구

The Study of Expression Methods in Modern Fashio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Formative Form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권기영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Gi-Young Kw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조형형태적 관점에서 살펴본
현대 패션디자인의 내적 의미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조형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본
패션디자인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formative methods (re-creative expressions, abstractive expressions, conceptual expressions, and adaptive expressions) as they are adapted to fashion design. Re-creative expression is the representation of real objects from nature or the environment, sometimes in a humorous or surrealist way.

Abstractive expression is the use of reconstructed forms extracted from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atural things, which take on variety of appearances based on the designer's creativity and imagination. Conceptual expression refers to the representation of ideas, concepts, and other products of the human mind. And, adaptive expression is a method of design that is focused on function driving the form of clothing. Modern fashion design is a fluid hybrid of these various types of expression that serves as an extension of the designers' aesthetic values.

주제어(Key Words) : 재현적 표현(re-creative expression), 추상적 표현(abstractive expression), 사고적 표현(conceivable expression), 적응적 표현(adaptive expression)

I. 서론

현대 패션은 한 시대의 기술과 문화, 사상 그리고 가치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예술 장르로서 기존의 디자인 형태를 초월하는 획기적 디자인과 소재는 현대인들의 다양해진 생활방식과 사고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트렌드들에서 보이는 이러한 조형적 의복은 인체를 바라보는 디자이너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의복의 표현방법과 기능 및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요구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뀐 오늘날 '디자인'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틀에 박힌 정형화된 모습 대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변신을 거듭해야 하는 디자인의 현실에서 최근의 트렌드에 적용되면서 앞으로의 변화되는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체계화되고 융통성있는 방법론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디자인 창조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조형하는가 하는 문제해결의 발견에 있다(심홍, 1986, p. 22). 디자인은 끊임없이 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또 인간이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패션디자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늘 트렌드에 맞추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디자인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유행을 창출하고 제안한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시장 또는 소비자의 요구이든 내면적인 욕망의 결과물이든 디자이너의 세계관과 미의식을 반영하며 트렌드를 만들어 낸다.

예술가적 관점에서 디자이너들을 본다면 예술가의 조형 활동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제작 활동에 대비해 볼 수 있다. 즉, 예술가가 대상을 바라보고 이를 조형형태로 창출해내는 조형표현활동은 디자이너가 주위의 대상물에서 영감을 받아 컨셉을 정하고 새로운 복식미를 구현하는 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해진 트렌드 및 의복의 기능성과 역할 및 의미에 대해 조형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예술 분야에서의 조형형태론을 근거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내는 조형적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조형형태론과 관련된 문헌들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잡지에서 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조형표현에 있어서의 네 가지 양식, 재현적 표현, 추상적 표현, 사고적 표현, 적응적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조형형태론의 개념

물질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자연을 통한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은 제작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방향이 과학자는 물질적인 데서 정신적인 방향으로 예술가는 정신적인 데서 출발하여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오춘란, 2003, p. 23). 예술가의 창조활동에 자연은 다양한 조형적인 형과 감각으로 끊임없이 영감을 부여하는 근원이 되며, 예술적 표현활동은 조형제작 활동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예술표현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재료와 재료 가공 기법은 이러한 표현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심홍, 1986, p. 10).

자연법칙은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법칙이라는 것이 엄격히 존재한다. 화가는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고 시인은 언어를 사용하며 수학자는 수와 도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패턴을 추구하는데, 이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술에서 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도 그 기본적인 법칙은 유효하다. 과학자가 자연에서 프랙탈과 카오스와 같은 현상 안에 숨겨진 질서를 찾아낸 것과 같이 20세기의 전위적인 작가들의 창조적인 작품 안에서도 은닉되어 있는 구조적인 질서를 찾을 수 있다(오춘란, 2003, p. 40).

이처럼 과학이나 공학의 발달, 새로운 이론의 정립은 재료나 재료가공기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이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조형 형태를 창조하고 있다.

조형사고는 예술가의 의지, 즉 미적 가치관에 의한 형과 소재·재료라고 하는 물질로서의 형(形) 사이에 기술이나 기법을 개입시켜 상호관련을 가지고 물을 객체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형 활동을 통해 작품이 탄생한다. 재료와 기술의 발달 및 그로 인한 변화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창조하는 조형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의 조형표현 방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형체를 동반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물(物)과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에 의하여 제안된 일련의 계획을 디자인이라고 부르며(심홍, 1986, p. 22),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방법은 최종물로서 형태를 창안하고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

칸딘스키(Kandinsky)는 형태란 속에 있는 내용의 외적 표

현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형태(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정신)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발자크(Balzac)는 모든 것은 형이며 생겨나는 것도 또한 형이라고 하였다(한석우, 1996, p. 38). 이는 조형형태의 발생에 대한 예술가 및 사상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조형형태의 발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자연주의적인 현상성 대신 과학에 의한 문제 추구라는 방법론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는 카린 토마스(Karin Thomas)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실제, 즉 순수함 또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십흥, 1986, p. 34).

이와 같은 형태의 분류는 크게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로 대별된다.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형태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대상의 비재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추상형으로서 매우 강한 질서를 갖는 규칙적인 조형을 가진다. 그 외에도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순수 기능적인 형태로서의 순수 형태와 인공형태, 그리고 구조적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 작동을 창출하는 기능적 형태인 구조적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한석우, 1996, p. 39).

실용적 목적이나 심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형태로서의 인공적인 형태는 과거 역사와 각 지역, 여러 민족 문화 유산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문명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고안되는 다양한 과학적 예술적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한석우, 1996, p. 39).

조형 형태를 창출해내는 조형 표현활동에는 회화·조각과 같은 예술이 있으며 이들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한다.

조형은 물건의 형태로 만들어진 도구와 특별히 예술이라는 칭호가 붙어있는 상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들은 인간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난 것들로 사람이 자연을 파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김춘일, 박남희, 1994, p. 11). 도구 생산으로서의 조형은 인간의 신체기능의 연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생활을 좀 더 편리한 것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전달하고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언어가 아닌 상징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림이나 춤 등과 같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조형은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형형태의 분류

십흥(十弘)과 삼산명박(杉山明博)은 「조형형태론, 1981」에서 인간의 조형활동 전반에 걸친 인간생활에 적합한 조형형

태를 산출하는 것에 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형표현에 있어서의 양식을 다음의 네 가지, 즉 대상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표현으로서의 재현적 조형(re-creative expressions), 대상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비형상적 형태로 표출하는 추상적 조형(abstract expressions), 수학적 질서를 추구할 때와 같은 지적인 조작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사고적 조형(conceivable expressions), 그리고 자연이나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응적 조형(adaptive expressions)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재현적 조형

다시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재현은 미학(美學)의 개념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현실대상과 닮은 상(像)을 만드는 모방과, 다른 하나는 연극이나 음악처럼 반복되어지는 작품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연(上演)이 있다.

인간이 조형표현의 활동 수단으로서 자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특히 미의 기준으로서 인체를 기준에 두고 인간을 이상화시켜 표현하였다. 이는 시각적 촉각적인 자연을 재현하는 방법으로서 자연미에 있는 미적 질서의 법칙성을 관찰하고(십흥, 1986, p. 40) 이상을 구체화하여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정확한 소묘력을 필요로 하였다. 예술의 본질이 자연의 모방에 있다(Monroe, 1997, p. 20)고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또한 외적 세계의 단순한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방되어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비춰진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감각적 세계 뒤에 있는 절대적인 현실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이상적 미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표현양식은 많이 변해왔는데, 그리스 및 로마미술에서는 재현적 표현이 강했고 중세기에는 왜곡된 표현이 중심이 되었다가 다시 르네상스 때에는 재현적 표현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후 17세기 바로크 미술에서는 왜곡된 표현이 존중되다가 19, 20세기 현대에는 추상적 표현과 재현적 표현이 교대로 강조되는 등 회화사에서 재현적 표현의 방식은 변화되어 왔다(김춘일, 박남희, 1994, p. 13). <그림 1>은 세레자 요한의 설교모습을 조각으로 나타낸 로맹의 작품으로 얼굴 표정과 신체 근육 등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현적 표현은 자연형태의 재현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작가 나름의 조형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개성적이며 다양한 표현성을 나타내고 있다(김춘일, 박남희, 1994, p. 13).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는 “조각은 하나의 딱딱한



〈그림 1〉 설교하는 세레 오한, 1878 (조형의 기초와 분석, p. 13)



〈그림 2〉 다리모양의 호두까개 (디자인과 키치, p. 226)

굳은 덩어리로 인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 전달되는 생명력의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연의 한 대상으로 인간 존재가 가지는 심리적·정서적인 힘을 조형화했다. 이는 현대의 재현적 조형방식이 과거처럼 자연의 형태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초월해서 좀 더 자신의 내면에 와닿는 '심상적'인 자연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복제(copy) 또한 본래의 것과 똑같이 제작하는 것, 또는 제작된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작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예부터 행해져왔다. 월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복제기술시대에 있어서의 예술작품(1936)」에서 영화, 사진 등을 예로 원본의 대응품으로서, 복제와는 다른 의미의 복제, 즉 원본에서 독립한 복제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진다 것을 언급하고, 매스컴이 발달한 복제기술시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예술 양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편,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된다.

〈그림 2〉의 여성의 다리모양을 하고 있는 호두까개는 성의 관능성을 유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호두를 까는 기계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웃음을 유도(오창섭, 1997, p. 225)하며 상품화된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현적 조형표현 방법은 원래의 대상이 지닌 속성과 결과로 도출되는 조형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욕망과 의미를 발현하며 키치적인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2) 추상적 조형

추상이란, 대상에서 특정 성질이나 공통된 징표(徵表)를 분리·독립시켜 사유(思惟)의 대상으로 하는 정신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

해 보편성과 일반성을 획득한다(심흥, 1986, p. 42). 따라서 추상적 표현은 자연형태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특질과 특성을 추출하여 재구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조형의 방식에서는 자연의 외형을 재현해내는 일은 축약, 간소화되거나 배제되게 된다.

미술에서는 구체적 대상의 재현(再現)이 아닌 빛깔·선·형태 등의 추상적 요소로 작품을 구성하는 비구상(非具象)미술, 비대상(非對象)미술이 이에 속한다.

이처럼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물의 구상적 이미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미술을 비대상(非對象)미술이라고 하며 추상미술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비구상 미술은 처음부터 추상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순수 추상미술을 뜻한다. 세잔느(Cezanne)가 자연의 대상을 원, 원주, 원통으로 추상화하여 바라본 것이나, 입체파 화가들이 자연의 형태를 전부 종합하여 새로운 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추상적 표현의 작품에는 기하학적인 추상이라고 하는 차갑고 예리한 표현경향을 띠는 무기적인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는 유기적 추상이 있는데,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이 마루바닥에 커다란 캔버스를 펼치고 물감의 이동범위를 확대시킨 행위는 회화를 조금이라도 개방시키고자 하는 그의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Hess, 2008, p. 18) 대상의 본질을 외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의해 관계되어지는 것들로 인식하고 표현한 추상 회화 작가들의 조형표현방법은 추상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각적 재현에서 시각적 재현으로의 조형사고의 전환은 현대조각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심흥, 1986, p. 43),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한 것, 느낀 것 등을 선재, 면재, 양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순수한 조소미의 요소를 살려 공간 속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추상조소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림 3〉의 브랑쿠시(Brancusi) 작품「공간의 새」에서 작가가 표현하는 새는 외부의 형태가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그리고 날아가려고 하는 생동하는 새의 이미지를 새의 본질로 보고 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 즉 본질을 직관하고 그것을 설명이나 묘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형태로 재구성해서 표현적으로 보여준다(김준일, 박남희, 1994, p. 16). 오늘날 사실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는 하나의 작품 안에서도 공존하기도 한다.



〈그림 3〉브랑쿠시, 「공간의 새」, 1925년 (조형의 기초와 분석, p. 16)

(3) 사고적 조형

사고(thinking)란 여러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판단하고, 다시 판단을 결합하여 추리하는 것으로, 사고적 표현은 자연 형태의 재현이나 추상적 이해에서 탈피하여 무대상 속에서의 조형표현 과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형태를 사고하는 표현방법이다(심홍, 1986, p. 44).

계슈탈트 심리학자인 아른하임(Arnheim)에 의하면 본래 예술적 조형은 '지각적 사고'와 표현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적 사고란 대상의 특성을 지각하는 인지과정이며, 표현적 사고는 지각에서 얻은 독특한 대상의 이미지를 표현재료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번역, 제작하는 인지과정을 말한다(김춘일, 박남희, 1994, p. 16). 따라서 모든 조형방식에는 사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뜻하는 사고적 조형은 자연형태의 재현이나 추상적 조형과는 달리 조형하는 과정의 처음부터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미지를 얻지 않고 곧바로 생각 속에서 표현할 이미지를 고안해내는 조형방식을 말한다. 즉 무대상의 표현방식으로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만으로 어떤 형태를 사유, 산출하는 조형방식이다(김춘일, 박남희, 1994, p. 17).

예술작품에는 그 자체 외의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보는 사람의 직접적이고 순수한 시각 반응을 위해서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선을 사용한 말레비치(Malevich)의 절대주의와, 본질적인 요소만으로 감축된 미술로서 표면의 장식이나 표현적인 행위없이 구성된 것으로 순수하고 추상적이며 객관적인 동시에 익명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조형적 사고를 보여준다. 말레비치는 현실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순수한 자율세계를 생각해서 하얀 정방형의 종이 가운데 까만 정방형을 연필로 그렸는데, 그는 연필이라는 간단한 표현재료와 표현방법으로서 정방형이라는 아주 규칙적이고 바른 형을 그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했다(심홍, 1986, p. 44).



〈그림 4〉 절단된 1킬로미터, 월트 드 마리아, 1979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p. 26)

한편 작품의 물질적·시각적 측면에 대해 관념적인 측면의 강조를 나타내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은 작품 자체보다는 제작의 아이디어나 과정을 오히려 예술적이라고 봄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사고를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4〉의 작품은 1979년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가 길이가

똑같은 500개의 못쇠막대들로 넓은 웨스트 브로드웨이 화랑의 바닥을 채운 뒤 못쇠막대들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정확하게 1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절단된 1킬로미터」라고 불렀는데(Edward, 1992, p. 27), 이는 예술가의 지적 사고 과정을 잘 보여준다.

종이 대신 잡다한 물건이나 폐품 따위의 오브제를 조립해서 작품을 만드는 3차원의 콜라주 조각인 앳상블라주 또한 사고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과거 회화가 가지고 있던 미의 개념이 붕괴되고 굳어버린 미의식에서 해방된 인간의 심리가 다양하고 새로운 조형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의 전위예술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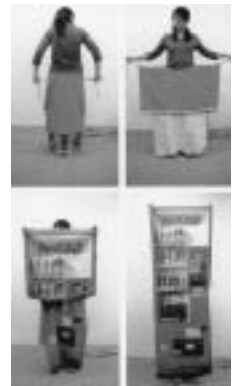
이러한 사고적 실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다양한 새로운 물질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도 사용되었으며, 현대의 주요 문화를 형성하는 영화, TV, 사진 등 비조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시적인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심홍, 1986, p. 45).

다시 말해 예술을 통해 주관적인 자기의 의미와 개성을 구체적인 감성적 형식으로 드러낼 때 예술미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사고적 표현에 의한 인간의 조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적응적 조형

적응적 조형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상징 등을 고안해내는 조형방식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 인간 생활도 함께 변모되면서 그에 맞는 적합한 도구나 조형물의 형태도 달리 요구되어져 왔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의 다양성은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이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안하는 데 한계와 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개인의 다양한 생활요구를 충족하는 형의 발견이나 창조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나 주거하는 건축물 등으로서 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5〉의 일본 디자이너 츠키오카(Tsukioka)가 개발한 스커트는 앞 패널을 뒤집으면 자동판매기가 실물 사이즈로 프린트되어 있어 착용자가 피난처를 찾고 싶을 때 스커트를 덮고 있는 한 겹을 위로 올리면 된다. 이 옷은 언제 어디서나 착용자가 원할 때 스커트를 자동판매기로 변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장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Mitchell, 2005, p. 91). 적응적 조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림 5〉 Tsukioka(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p. 90)

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으로, 시대적 변화나 개인에 따라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나 건축에 있어서의 형은 개개인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DIY(Do it Yourself) 트렌드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주변의 것을 개량 조합하여 사용 또는 원하는 디자인을 기능인에게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적응성을 발전시키고 많은 것을 조합시켜서 개성적 생활을 실현하는 것은 적응적 표현의 참다운 의미라 할 수 있으며, 적응성에 대한 사고는 어떠한 품목이나 사용처, 형태 그에 따른 기술, 소재에 따라 차별화되며, 각각의 단계에서 다르게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적응적 표현은 인간의 행복 추구가 최종의 목적으로, 이는 조형 예술인의 임무이다.

Ⅲ. 조형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본 패션디자인

1. 재현적 디자인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사실적으로 의복디자인에 재현한 것으로 자연미에 존재하는 미적 법칙성을 분석하고 이상을 구체화하여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정확한 관찰력을 필요로 하며, 이 때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사고나 가치관이 재현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한다.

재현적 조형표현방법은 원래 지각된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의복으로 표현되어지면 모델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따라 나타나는 분위기는 다양하게 달라진다.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의 식물이나 동물일 경우 사실적인 재현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는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전혀 의외의 부위에 이색적인 조합들로 이루어진 때에는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그림 6〉의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은 여사제와 이교도 여성 성직자를 참고로 디자인한 것으로 새틴 스커트 전면을 실제 동물가죽으로 드레이프시켜 구성하였다. 마무리되지 않은 가죽 가장자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야생과 사육이라고 하는 모순된 것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으며, 이를 테일러드된 의상과 결합하는 것은 문명과 야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Bolton, 2004, p. 40). 이러한 예에서 보듯 실제 동물 가죽을 그대로 의복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미를 그대로 이용하는 측면과 함께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미를 의복이라고 하는 문화의



〈그림 6〉 Jean Paul Gaultier, 97-98A/W (Wild fashion untamed, p.39)



〈그림 7〉 Elsa Schiaparelli, 1938(Fashion and Surrealism, p.171)

부산물에 결합시키며 문명화된 인간의 삶에 끌어들임으로써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7〉은 재현하고 있는 대상의 속성과 이미지를 서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닌 전혀 의외의 것과 함께 배치시킴으로써 지각된 대상의 불일치를 통한 혼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초현실주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엘자 스키피아파렐리(Elsa Schiaparelli)가 디자인한 재킷에 장식되어 있는 매미 버튼은 사실적인 형태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과 괴기, 또는 역설적으로 유모어를 느끼게도 한다. 이처럼 패션에 있어서 재현적 표현에 의한 조형 표현 방법은 다른 외부대상과의 관계나 배치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위기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2. 추상적 디자인

추상적 표현은 자연형태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특질과 특성을 추출하여 재구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조형의 방식에서는 자연의 외형을 재현해내는 일은 축약, 간소화되거나 배제되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 디자인의 의복도 대상의 특정 성질이나 공통된 징표(徵表) 외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사실적인 형태를 갖지 않으며, 디자이너의 미의식에 따라 자유스러운 형태와 선, 색, 질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며 최근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에 대부분 적용된다.

〈그림 8〉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가 발표한 'Man's shirt'는 야구에서 포수가 착용하는 보호장비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가슴부위의 패드는 인체의 가슴골격 형태가 지닌 본질을 추출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다음 〈그림 9〉는 폼므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Bump' 컬렉션에서 발표된 것인데, 탑과 스커트에 밝은 색의 스트레치성 킴패턴 소재를 이용하여 여성신체의 실루엣 특징을 추상



〈그림 8〉 Issey Miyake, 01 S/S (Extreme Beauty, p. 95)



〈그림 9〉 Comme des Garçons, 97S/S (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p. 54)

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여성미에 대한 도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추상적 디자인은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대상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도 있고,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형물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3. 사고적 디자인

사고적 표현에 의한 디자인은 자연형태를 재현하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탈피하여 무대상 속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해 형태를 사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심홍, 1986, p. 44). 이미지를 따와서 변형 응용함으로써 분위기와 스타일들을 조작하며, 이 때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Between' 컬렉션에서 발표된 〈그림 10〉은 인간신체를 지리적 문화적 영토와 관련하여 실험한 것으로, 모델의 머리에 끼워진 직사각형 프레임의 거울은 관객이 모델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결과 관음자로서의 관객이 가지는 일방향적 관계는 상호방향으로 전환된다(Evans & Menkes, 2005, p. 30).

이와 같이 살라얀은 옷이라는 건축물의 기능에 과도한 변화를 줌으로써 단순히 좀 더 개성있는 옷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을 통해 신체를 보여준다는 것, 나아가 그것을 통해 신체의 정체성을 표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혜경, 2000). 이러한 그의 디자인 과정은 조형표현방법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추구하기보다 사고의 결과물로서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따른다.

사고적 조형의 일종으로 현대 사회생활의 방대한 산물과 폐물들을 굶어모아서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앓상블라주(김춘일, 박남희, 1994, p. 17)기법이 디자인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다문화적인 요소나 이질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영화「에피소드」의 의상은 중국, 몽고, 인도, 아프리카, 일본 전통의 상의 모티브들과 16, 17세기 유럽 궁중 드레스의 디테일을 조화시키며, 부분적으로 아르 누보의 복잡함과 디테일의 섬세함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어떤 한 가지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옛 것과 새로운 감각, 동양과 서양의 감각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요소를 결합함에 있어 사유의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적 조형방법에 속한다. 아라카와(Shinichirp Arakawa)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가먼트의 외곽선을 나타내는 스트레칭 패브릭의 캔버스를 벽에 일렬로 진열하였는데, 프레임 처리가 된 이 옷 앞에는 '캔버스를 프레임 밖으로 갖고 가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열려 있는 곳에 머리를 넣고 암홀에 팔을 끼워 넣은 뒤 천을 몸에 두르고 지나나 단추로 고정하면 되는 이 작품은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발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준다기보다 가먼트 그 자체를 강조하고 디자인과 구성의 면밀함을 아주 잘 나타낸다(Mitchel, 2005, p. 47). 이처럼 의복형태와 착용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독창적 사고와 미적 가치관을 잘 드러낸다.



〈그림 10〉 Hussein Chalayan, 1998 (Hussein Chalayan, p. 34)



〈그림 11〉 Shinichiro Arakawa, 99/00 A/W (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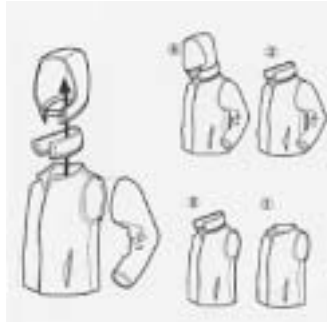
4. 적응적 디자인

적응적 사고는 외부환경에 신체가 적응하도록 의복의 형태와 기능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게 된 기원 중의 하나인 신체보호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현대 디지털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가져왔으며 인간의 신체와 패션에 있어서의 고정되고 확정적인 정체성 개념과 건축에서의 정주적 개념은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 21세기 유목민적 특성을 지닌 잭 노마드들은 신체의 움직임의 기준으로 의복을 구성하여 신체를 둘러싼 외피의 기능이 아닌 이동성과 축소된 건축물의 장으로서의 의복을 지향하는



〈그림 12〉 CP company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 106)



〈그림 13〉 Patrick Cox (The supermodern wardrobe, p. 28)



〈그림 14〉 Lucy Orta, 1994(The supermodern wardrobe, p. 132)

데, 이러한 의복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편의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양희영, 양숙희, 2006).

〈그림 12〉는 매트리스로 변형되는 오버코트인데, 이처럼 시퍼 컴퍼니(CP company)의 오버코트나 파카는 매트리스나 1인용 텐트로 변형되어 거의 즉각적으로 일시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 가구, 건축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루시 오르타(Lucy Orta) 또한 텐트와 침낭으로 전환될 수 있는 파카를 포함하여 도시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옷들을 제작 발표하였다.

이들 의복의 특징은 다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옷과 건축은 거의 동일한 개념을 갖게 된다. 패트릭 콕스(Patrick Cox)는 〈그림 13〉의 모듈의상에서 보는 것처럼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의복이 변형가능하도록 제작함으로써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패션은 미래 패션의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4〉의 피난복(Refuge Wear)은 현대 도시 생활의 가난, 소외, 혼란, 노숙을 이슈로 다루는 루시 오르타(Lucy Orta)가 디자인한 것으로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의복 또는 임시피난처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응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적응적 패션은 보호처로서의 의복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와 기술 발달에 따라 변하는 환경에 인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복이 함께 변모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미래의 가상현실을 다룬 팬타지 영화나 SF영화에서 소개된 최첨단 기능을 가진 의복이나 여러 장비들은 기술의 발달로 실제 제품화되어 상용되기도 한다.

한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등장한 친환경 의복 또한 적응적 조형

표현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지구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다양한 재생의상들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 그린 패션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IV. 조형형태적 관점에서 살펴본 현대 패션디자인의 내적 의미

1. 유동적 복합성

의복은 인체 위에 실제 입혀지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둘러싼 피부로서 인간과 더 밀착되며 예술보다 훨씬 유동적 복합성을 띠고 있다.

재현적 조형이라 하더라도 실제 착용자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문화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디자인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예를 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의외의 곳에 배치한 초현실주의 패션은 21세기 디지털 문화 속에서 급속도로 전환되는 이미지와 사고의 패러다임, 그리고 충격적이고 강인한 시각적 자극 등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충격과 신선함을 준다.

또한 다양한 조형표현방법이 각기 따로 분리되어 적용되기도 하고, 그 결과 나온 디자인이 변화하는 인간 생활을 위한 적응적 조형물로 거듭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패션 디자인은 복합적 유동성을 지닌 가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둘러싼 피복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조형표현방법은 때에 맞게 변모 또는 다른 것과 결합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한다.

2. 무형식적 규칙성

현대의 전위적이고 독창적인 수많은 디자인들은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을 거쳐 인간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도출되거나, 자연계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표 1〉 조형형태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징 및 의미

조형대상	디자인 특징	상징성	내적 의미	
재현적 표현	· 자연계에 실재하는 구체적 대상 · 특정 대상, 형태에 대한 사실적 표현	· 인간, 자연, 동식물, 인공물 등에 관한 사실적 표현 · 시대, 역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상징물 재현	· 사실성 · 초현실성 · 해학성	· 유동적 복합성
추상적 표현	· 대상의 본질 추출 · 재구성	· 간결하고 절제된 라인 · 사실적 형태를 지니지 않음	· 심미성	· 무형식적 규칙성
사고적 표현	·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형태사고방법	· 신체의 정체성 표현 · 고정관념을 탈피한 디자인	· 전위성	· 내적 가치의 외연화
적응적 표현	· 인간의 생활목적에 적응하는 형태의 조형 추구	· 모듈 시스템 응용으로 다양한 디자인 가능 ·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 가변적 디자인 · 친환경 패션	· 기능성 · 가변성 · 미래성	

속에 내재된 본질을 발견하고 여기에 현대적인 모던함과 세련된 기능을 첨가하여 추상적 조형물로 거듭나기도 한다.

조형형태론에서 다루는 조형표현 방법은 이처럼 무한한 다양성을 보이는 갖가지 디자인들에서 보이는 무형식과 불규칙적 요소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측과 서술이 불가능한 디자인에 관한 사고의 정리를 도와주며, 미래의 디자인 방향과 이에 따른 삶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기여한다. 즉, 디자인 방법론에 있어서 인간생활에 적합한 것들을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듯이 자연을 재현하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단순한 리얼리티의 실현보다도 인체 위에 적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재창조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조형표현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현대 디자인의 복잡성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중요한 것은 개개의 개성적인 소수의 소비자를 전제로 한, 섬세한 적응적 조형방식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내적 가치의 외연화

동일한 대상을 재현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디자이너의 가치관과 미의식에 따라 표현되어지는 작품은 상이하다. 조형사고는 예술가의 의지, 즉 미적 가치관에 따라 형태와 소재라고 하는 물질 사이에 기술이나 기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조형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창조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재료나 신기술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후세인 살라얀은 컬렉션마다 새로운 조형실험을 통해 의복과 신체의 정체성을 묻는데, 여기서 건축이론과 과학, 테크놀러지가 그의 사고적 조형과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잘 드러난다.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는 기존 의상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의복을 추상적 형태의 예술적 조형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는데, 이는 그가 동양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감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형

표현방법을 보이고 있는 작품 이면에는 디자이너의 사고와 심미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예술가의 조형활동을 디자이너의 작품제작활동과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형표현에 있어서의 네 가지 양식, 재현적 표현, 추상적 표현, 사고적 표현, 적응적 표현을 중심으로 복식디자인 양식을 고찰한 것이다.

재현적 조형은 자연형태의 재현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작가 나름의 조형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개성적이고 다양한 표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 원래의 대상이 지닌 속성과 결과로 나온 조형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이미지와 의미가 도출된다. 재현적 조형표현방법은 원래 지각된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의복으로 표현되어지면 모델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따라 나타나는 분위기는 다양하게 달라진다.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의 식물이나 동물일 경우 사실적인 재현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는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전혀 의외의 부위에 이색적인 조합들로 이루어진 때에는 유모어나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추상적 조형은 자연형태의 대상을 축약, 간소화하거나 배제하고 그것의 기본적 특질과 특성을 추출하여 재구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에 의한 디자인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가능케 한다.

사고적 표현은 자연형태의 재현이나 추상적 이해를 벗어난 무대상 속에서의 조형표현 과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해 형태를 사고하는 표현방법이다. 절대주의나 미니멀리즘에서 조형표현에서의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사고를 볼

수 있으며, 이미지를 변형·응용함으로써 분위기와 스타일을 조작하는데, 이 때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의복을 통해 신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관객과 상호작용 하는 등 디자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을 추구하기보다 사고의 결과물로서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따른다.

적응적 조형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상징 등을 고안해 내는 조형방식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달에 따라 달리 요구되어지며, 개인의 필요와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 나온 디자인은 개개인의 욕구와 개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적응성이 확대되고 대량생산되기도 한다. 적응적 패션은 보호처로서의 의복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데 인간을 둘러싼 환경, 미래의 모습 등에 따라 변모될 의복의 형태나 기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조형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현대 패션 디자인은 첫째, 다양한 조형표현방법이 각기 따로 분리되어 적용되기보다 두 가지 이상의 조형표현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유동적 복합성을 띠고 있으며, 둘째 불규칙적이고 무형식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의 이면에도 규칙성이 존재하고, 셋째, 디자이너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미적 가치를 외연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의복을 조형형태의 일종으로 봄으로써 현대의 다양한 디자인들을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김춘일, 박남희(1994).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김혜경(2000).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복식**, 50(4), 5-20.
 심 홍(1986). **조형형태론**. 서울: 미진사.
 오창섭(1997). **디자인과 키치**. 서울: 토마토.

오춘란(2003). **조형예술원론**. 부산: 동아대출판부.
 양희영, 양숙희(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공간구성방식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복식**, 56(7), 85-100.
 한석우(1996).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Benjamin, W.(2007).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역). 서울: 길. (1936년 원저발간)
 Bolton, A.(2004). *Wild fashion unta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Edward, L. S.(1992). *Art in the seventies*. Massachusetts: Phaidon Press Limited.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 시각과 언어 편집부(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80년 원저발간)
 Evans, C., & Menkes, S.(2005). *Hussein Chalayan*. Rotterdam: Nai Publishers.
 Hess, B.(2008). *Abstract Expressionism*. N.Y.: Taschen. **추상표현주의**. 김병화(역).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5년 원저발간)
 Mitchell, L.(2005). *The cutting edge fashion from Japan*. Sydney: Powerhouse Publishing.
 Monroe, C. B.(1997).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미학사**. 이성훈, 안원홍(공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75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8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5일